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에서 소프트웨어전공 4 학년으로 지내다 보니, 인성이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추상적인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과제, 팀플, 학부연구생, 과학생회, 졸업작품 및 전시회, 타 대학원 준비까지 챙기다 보면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볼 여유가 별로 없었다. 이번 수업에서 인성 형성에 필요한 9 가지 덕목에 대해 배우면서, 그동안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하고 넘겼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수업에서 다룬 덕목들을 내 식대로 정리해 보면 정직, 책임감, 성실성, 배려, 존중, 소통, 협동, 자기절제, 도전정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내가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덕목은 아직 부족한지 생각해 보았다.

먼저, 내가 비교적 잘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덕목은 책임감과 성실성이다. 컴퓨터공학과 특성상 대외 및 교내 팀 프로젝트가 많고, 특히 3 학년 이후부터는 팀플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나는 맡은 역할을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려는 편이었다. 예를 들어 졸업작품에서 전반적인 모든 개발을 맡아서 팀장으로 진행 할 때, 서버가 자주 오류를 내서 밤늦게까지 랩실에 남아서 로그를 뒤지고 코드를 수정했던 기억이 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거 내가 맡은 부분인데 이게 안 되면 팀 전체 결과물이 흔들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라도 붙들고 있었다. 시험 기간에도 중요한 과목들은 최소한 강의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과제도 마감 직전에 버락치기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출은 꼭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책임감과 성실성은 나름대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느낀다.

협동과 소통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덕목이다. 개발 쪽 팀플을 하다 보면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고, 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 코드만 챙기는 사람도 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할 때가 많았다. 다 같이 모이기 어려울 때는 카톡 방에서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 깃허브에 이슈를 만들어서 “이 부분은 누가 맡을지”를 정리해 두곤 했다. 누군가 일정이 밀리면 “그럼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도와줄게, 대신 너는 테스트 쪽을 더 맡아줘”처럼 역할을 나누면서 서로 부담을 나누려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말투도 최대한 부드럽게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 협동과 소통 면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다.

배려와 존중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팀플에서 발표자를 정할 때,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팀원이 있으면 굳이 발표를 떠맡기기보다는 “그러면 나는 발표할게, 대신 너는 자료 정리랑 슬라이드 쪽을 더 챙겨줄래?”라고 제안하려고 한다. 또 전공 수업이라고 해도 코딩 실력이 아직 부족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이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내가 예전에 헛갈렸던 부분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설명하려고 한다. 선후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후배라고 해서 무조건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태도들은 아직 체화된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배려와 존중의 덕목이 조금은 내 안에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덕목은 자기절제와 시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다. 책임감 때문에 결국 할 일은 하긴 하지만, 과정이 항상 깔끔하진 않다. 과제가 나왔을 때 미리 조금씩 해 두면 좋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집에 가면 게임을 켜고 있는 나 자신을 자주 본다. 그러다가 마감 이틀 전쯤 되어서야 밤새면서 코드를 짜거나 레포트를 쓰는 경우가 반복된다. 시험 공부도 계획표는 잘 짜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기절제의 덕목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 왔지만, 취업해서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 이런 습관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정직의 덕목도 완전히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남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할 때, 실제로는 코드를 거의 못 짰 상태인데 “구현은 어느 정도 해됐고, 좀 더 리팩토링만 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3 시간동안 집중하면 바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만했던거 같다. 그걸로 3 자에게 피해를 준적은 없지만 나 자신이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것에 대해 정직하지 못했다는것이 문제인거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나는 책임감, 성실성, 협동, 소통, 배려와 존중 같은 덕목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절제, 인내, 도전정신, 그리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함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다행인 점은, 인성이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과 습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 다시 한 번 느꼈다는 것이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스펙이나 기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일과를 조금 더 규칙적으로 만들고, 이루는 습관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대외 활동이나 스터디라도 스스로를 낯선 환경에 던져 보는 연습을 해 보려고 한다. 지금 당장은 부족한 덕목들이 더 눈에 띄지만, 그런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워 가려는 과정 자체가 인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고 싶다.